

〈Venture Digest〉는 벤처기업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드립니다.

신제품, 신기술, IR소식 등 알고 싶은 뉴스를 보도자료(기사, 사진)와 함께 협회 홍보팀으로 보내주세요.

협회 홍보팀 박미선 주임(02-6009-4100, 내선 301, Fax. 02-6009-4115, E-mail : pmsun@kova.or.kr)



### 에스티에스, 레팅쿨러 게이트 밸브 국산화 성공

반도체장비용 부품업체인 에스티에스(대표 서진찬)는 반도체 클러스터장치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6·8인치 겸용 레팅쿨러 게이트 밸브(반도체 고진공 조절장치)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레팅쿨러 게이트 밸브는 현재 일본·미국·스위스의 일부 부품업체만이 생산하고 있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부품으로, 수입대체와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티에스가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한 6·8인치 겸용 레팅쿨러 게이트 밸브는 전공정 로봇 및 프로세스 챔버에 진공 차단에 필요한 부품으로, 웨이퍼를 챔버에 로딩·언로딩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해주는 컴포넌트다. 이 부품은 클러스터형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장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CVD, 에칭, 스퍼터장비 등 그 응용분야가 매우 넓다.

### 넥스트리밍, 노르웨이 방송국에 동영상 솔루션 제공

무선인터넷 멀티미디어 솔루션업체인 넥스트리밍(대표 임일택)은 최근 노르웨이 최대 방송국인 NRK에 자체 기술로 개발한 멀티미디어 인코더와 서버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한 데 이어 1차로 공급분을 수출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넥스트리밍의 멀티미디어방송 솔루션은 해외 이동통신사인 보다폰·허치슨이 정한 권고형 인코더로, 넥스트리밍은 올해 초 분데스리가 축구경기 스트리밍 서비스 솔루션을 독일 플라자 미디어에 공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NRK는 넥스트리밍의 솔루션을 활용, 이 서비스를 북유럽 전역에 제공하게 된다. NRK는 인터넷포털에서 방송 프로그램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동일한 형식으로 무선인터넷상에서 TV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는 노르웨이 최대 방송사이다.

### 엠파스, '아름다운 검색 만들기' 캠페인 실시

지식발전소(대표 박석봉)의 검색포털 엠파스가 비영리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무료 키워드 광고를 제공키로 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아름다운 검색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나누는 세상 ▲깨끗한 세상 ▲행복한 세상 ▲희망찬 세상 만들기 등 총 4개 영역에서 1000여 개 키워드에 대해 사회단체들의 무료광고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지식발전소측은 예상하고 있다.

무료 키워드 광고를 원하는 단체는 오는 20일까지 엠파스 홈페이지에서 '아름다운 검색 만들기'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후 나오는 토픽 페이지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제공되는 무료 키워드 광고는 토픽 검색, 스피드업 광고, 빠른 등록 무료심사 등 3가지 형태이다.



**씨앤에스, 인터넷 영상전화기 '비쥬폰' 일본서 상용서비스**

인터넷 영상전화기 생산업체인 씨앤에스테크놀로지(대표 서승모)는 일본 인터넷 전화서비스 업체인 퓨전커뮤니케이션이 오는 10월 자사 '비쥬폰'으로 인터넷 영상전화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월 18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퓨전커뮤니케이션이 일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중인 네트워크 관련 종합 전시회인 '넷월드 앤 인터롭 2004 도쿄'에서 처음 밝혔으며,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발표됐다.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씨앤에스의 '비쥬폰'은 선명한 화질의 4인치 디스플레이와 친근한 버튼식 인터페이스를 갖췄다는 점에서 청소년에서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세대에 걸쳐 좋은 반응을 얻어 화제가 됐다. 비쥬폰 공급은 일본내 독점 공급사인 히타치그룹 계열의 히타치 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로커스테크놀로지스, 프로스트&설리반 '마켓 엔지니어링 어워드' 수상**

로커스테크놀로지스(대표 김용수)는 세계적인 통신전문 조사 및 컨설팅기관인 프로스트&설리반이 조사한 '한국 ICRM시장의 전략적 고찰' 보고서에서 '2004 마켓 엔지니어링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7월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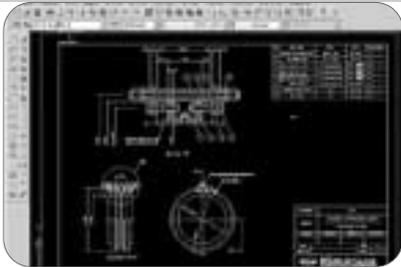
프로스트&설리반측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마켓 엔지니어링 어워드는 로커스테크놀로지스가 한국시장뿐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시장리더십, 서비스 수준, 구현능력, 상품전략, 개발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시상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프로스트&설리반 모야야드 수석 컨설턴트는 이번 보고서에서 산업별로 보았을 때 로커스테크놀로지스가 제 1-2금융권, 통신사, 물류, 아웃소싱 콜센터 사업군 등에서 모두 시장점유율 1위를 점했으며, 규모면에서도 상당원 250석 이상과 500석 이상 대규모 컨택센터 시장에서 모두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지오인터랙티브, 여성전용 모바일게임 '내맘찾아100층' 서비스 개시**

모바일 게임회사 지오인터랙티브(대표 김병기)는 순수 창작 모바일게임 '내맘찾아100층'을 SK텔레콤에 서비스한다고 7월 26일 밝혔다.

지오의 '내맘찾아100층'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가는 주인공의 동화같은 스토리와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최근 새롭게 모바일게임 유저층으로 떠오르는 여성들을 위한 게임이다. 이 게임은 잃어버린 12가지 마음을 찾아서 장애물을 피해 100층의 이모티콘 타워를 올라가는 스토리모드와 발바닥을 밟으며 연습할 수 있는 훈련모드로 구성되어 있다.

GVM(General Virtual Machine) 기반의 휴대폰게임으로 다운로드 건당 2000원의 정보이용료만 내면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이용 방법은 네이트(Nate)에 접속, 게임Zone→네트워크/아케이드→아케이드→내맘찾아100층 순으로 이용하면 된다.



### IT&T, 설계도면 자동생성 시스템 출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IT&T(대표 유상철)가 필요한 자재 데이터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도면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지난 10개월 간 총 2억5000만원을 들여 개발한 'IT&T 도면생성시스템'은 제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면을 데이터베이스(DB)화·디지털화해 제품과 치수 및 필요자재를 선택하면 DB에서 계산 처리돼 오토캐드(Auto CAD)상에서 도면이 출력된다.

이 제품은 특히 도면에 들어가는 자재품을 일정 규칙에 의해 시스템화했기 때문에 손쉽게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설계업무 자동화나 설계도면 관리의 시스템화, 설계업무의 정확성 등을 기할 수 있다. 특히 이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넷넷(.Net)' 기반의 도면생성 엔진인 '체너레이터 엔진'을 적용하고 있어 이식성이 좋고 PDA나 태블릿PC 등 다양한 시스템에서 구동할 수 있다.

### 디비코, '티빅스(TVIX)' 출시

영상편집기 전문업체인 디비코(대표 이지웅)는 동영상 포맷 호환성을 높여 모든 버전의 디빅스 및 MPEG1·2 파일을 지원하고, 고화질 HD 컴포넌트 출력을 지원해 최대 1920×1080 픽셀의 대화면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티빅스(TVIX)'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MP3·WMA·OGG 등 다양한 음악 파일을 지원해 주크박스로 활용할 수 있고, 포토앨범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NTFS 파일시스템을 지원해 32GB 용량마다 파티션을 나눠야 할 필요가 없으며, 본체 크기가 작고 파워 어댑터를 내장해 휴대가 손쉬운 것이 특징이다.

120GB 용량 HDD를 탑재할 경우, 20만원대의 가격으로 85편 이상의 디빅스 영화, 2만 4000여 곡 이상의 MP3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PC와의 연결은 USB 2.0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대용량의 동영상 파일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으며, 외장형 저장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다.



**NHN, 상반기 매출 1000억 돌파** | NHN(대표 김범수)은 2004년 상반기 총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41.5% 성장한 1082억6000만원을 기록, 설립 6년만에 반기 매출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월 20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392억5000만원, 당기순이익 317억원으로 집계됐다.

NHN의 상반기 매출 1082억6000만원 중 광고 매출이 161억3000만원(14.9%), 검색 매출이 340억3000만원(31.4%), 게임 매출이 480억2000만원(44.4%), EC 매출이 45억8000만원(4.2%) 그리고 기타 매출이 54억8000만원(5.1%)을 차지했다.



**다날, 코스닥등록 첫거래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업체인 다날(대표 박성찬)이 7월 23일 코스닥에 등록하여 첫 거래를 시작했다.** 다날은 모바일 콘텐츠 사업부문을 통해 휴대폰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185% 이상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현재 업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날은 지난해 466억원의 매출에 5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가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점을 증명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 1/4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128억원과 14억원에 달해 불황에도 내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넥스트인스트루먼트 코스닥등록 승인** 넥스트인스트루먼트(대표 오은진)는 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으로부터 7월 21일 코스닥 등록을 승인받았다. 이 회사는 LCD(액정표시장치)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로 지난해 463억원 매출에 51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한편, 7월 22일 산업자원부의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넥스트인스트루먼트는 ATC과제인 'TFT-LCD 제조공정의 핵심장비인 광학검사장비 개발'을 통해 세계 제1의 수준의 기술을 확보, 2000~3000억원에 달하는 세계 TFT-LCD 시장의 주도권을 쥘 것이라고 반도체 웨이퍼(Wafer) 광학검사장비 및 PCB(회로기판) 광학검사장비 시장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